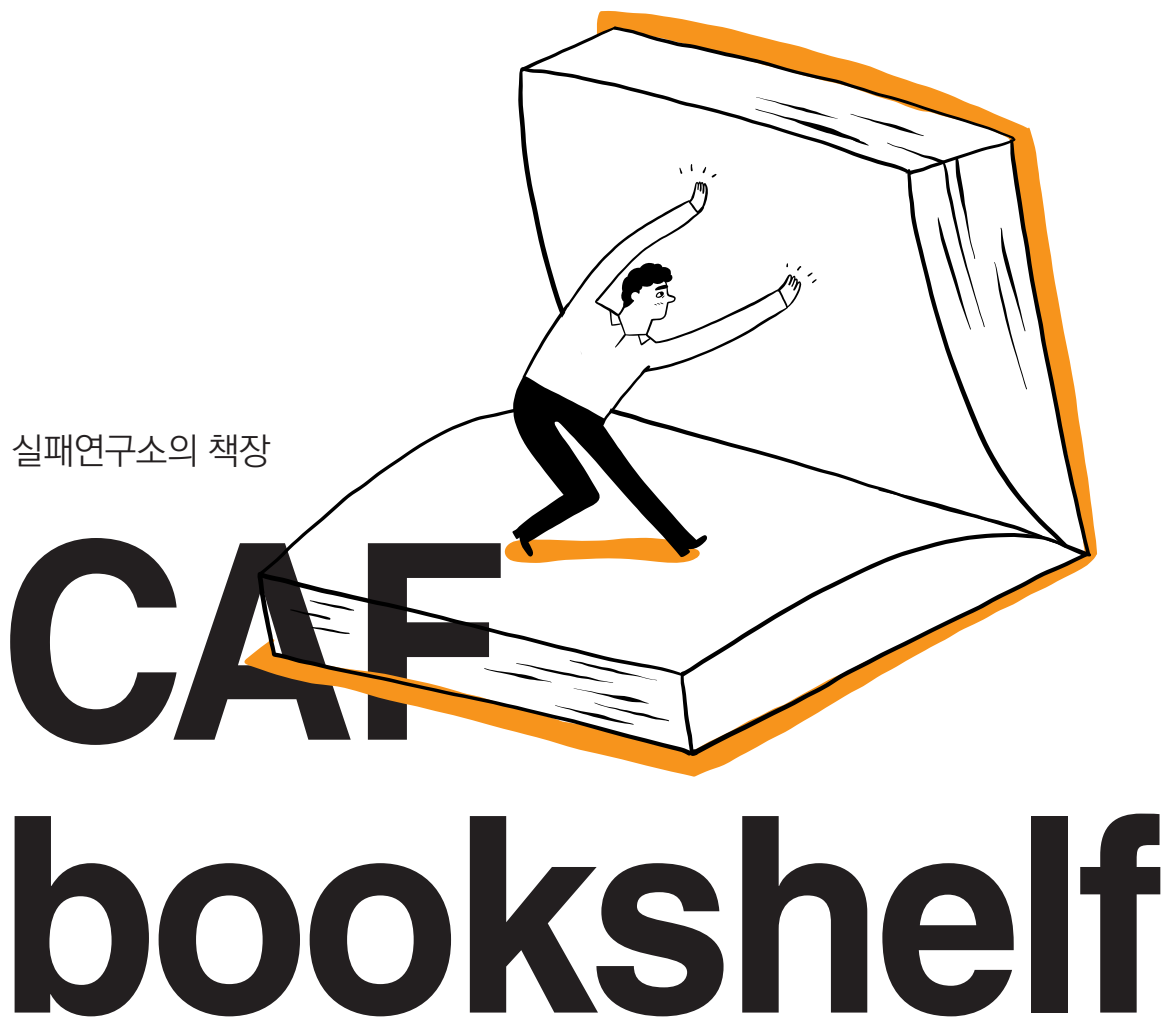


실패연구소의 책장



선을 넘는 창의력과 대담한 순발력이 필요한 로켓과학자의 사고법



문샷 : 극한상황에서 더 크게 도약하는 로켓 과학자의 9가지 생각법

오잔바를 지음

이경식 옮김

알에이치코리아 펴냄

문샷 사고(MoonShot Thinking)란, 달을 제대로 보기 위해 천체 망원경의 기능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달 탐사선을 우주로 쏘아 올리는 식의 혁신적이고 대담한 발상을 일컫는다.

이 책의 저자 오잔 바를은 로켓을 달로 쏘아올린 인간의 도약이 '기술의 승리'가 아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'사고 과정의 승리'라고 이야기하며, 이 사고 과정이 더 나은 혁신으로 이끌 것이라 장담한다.

로켓과학자처럼 사고한다는 것은 세상을 전혀 다른 관점으로 보는 일이다. 로켓과학자 톰물러는 '로켓 엔진에 불을 붙였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1,000가지, 그 중 바람직한 경우는 딱 한가지 뿐이다.' 라고 말한 바 있다. 그러나 그들은 온갖 실패와 사고를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수수께끼로 본다. 규칙은 고정된 것이 아니고, 기본 설정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으며, 언제든지 새로운 경로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믿는다.

저자 오잔 바를은 NASA의 화성탐사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등 로켓과학 분야에서 일하다, 법학으로 커리어를 전환하여 현재는 로스쿨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. 법학자가 된 후, 온갖 위기 상황에서 가장 빠르고 훌륭한 답을 찾아내야 하는 로켓과학자의 판단력과 사고방식이 자신의 일과 삶에 여전히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책을 펴냈다.

그가 소개하는 로켓과학자의 사고법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. 첫째, 불확실성을 끌어안고, 현재로부터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미래를 먼저 상상하여 그 곳에 도달할 현재의 방법을 찾는 것. 둘째, 답을 성급하게 내리는 대신 제대로 된 질문을 하고, 가설을 세워 끊임없이 검증하고 실험하는 것을 통해 해결의 속도를 내는 것. 마지막으로 자신의 잠재력을 온전하게 실현하기 위해 성공과 실패 모두를 현명하게 활용하는 것이다. 그 구체적인 방법이 궁금하다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기를 권한다. 특히 로켓과학분야 뿐 아니라, 다양한 분야에서 로켓과학자처럼 사고해 큰 성취를 이뤄낸 사람들, 그리고 그렇게 사고하지 못한 이들이 마주한 아찔한 실패 등 다양한 사례가 담겨 있어 읽는 재미를 더할 것이다.

